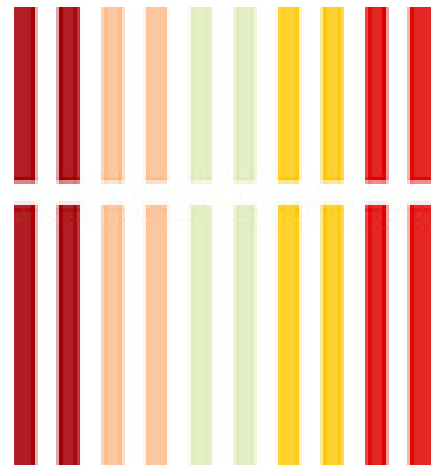


Nr. 560 (2025- 11-12)

타사



##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탄생

편집부

탄생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가장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고 전합니다. 그 숨결 안에는 사랑과 계획, 그리고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루카 2,11)는 기쁜 소식은 인류의 새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작은 ‘탄생’을 경험합니다 —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순간들입니다. 이 계절,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다시 피워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조용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

■■■ 읊기의 말씀입니다. 19.1.23-27L

1 읊이 말을 받았다.

23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25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26 내 슬픔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27 내가 기어이 뵈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7월 13일 청년 성서연수 기금 마련 바자회 1



7월 13일 청년 성서연수 기금 마련 바자회 2

## 탄생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스 성지순례 소감 / 전정화 미카엘라, 양소영 루실라



2025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초심 (Neues Herz)

3,4월 십자가 (Das Kreuz)

5,6월 어머니 (Mutter)

7,8월 순례 (Wahlfahrt)

9,10월 일치 (Einheit)

**11,12월 탄생 (Geburt)**

# 11월, 그리고 12월

허광철 요셉 신부님

## “11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주 시인의 11월 이라는 시를 소개하며 올 해 마지막 '빛과 소금'의 묵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엔 아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 어디선가 서리맞은 장미 한송이 / 피를 문 입술로 /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 낮이 조금 더 짧아 졌습니다 /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나태주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中)

시인은 인생의 중간쯤에 선 '11월' 같은 시기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여겨집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는 구절은 아쉬움과 회한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Trotzdem) 사랑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지막도 묵상해 보는 11월 위령성월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12월이 되면 전례력으로 다시 새해 대림시기가 시작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 “12월, 말씀 잉태의 시기”

오래 전 부제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분당 파견을 나가서 주일미사 강론을 준비하던 밤이었습니다. 복음을 앞에 펴고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나타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부제님, 보श्य.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 여인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말을 따라 아이를 본 순간, 정말 아이가 저와 꼭 닮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여인을 쳐다보는데, 여인이 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자, 연  
은 아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를 쳐다 보았더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  
니다. 저도 연인과 함께 통곡하며 울다  
가 잠이 깨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다  
고 했지요? 네, 강론 준비를 하다가 깜  
빕 졸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온 머리  
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  
니다. 강론은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하  
여 출산 하는 것인데...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사생이라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나의 삶과  
신앙이 생명 없이 죽은 것이라면...

곧 다가 올 대림시기는, 아울러 구세주  
의 탄생을 노래하는 성탄시기는 말씀  
잉태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바라보습  
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다시금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잉태되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 봅니다. 내가 내뱉는 수  
많은 말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이 말씀  
을 품고 있었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품  
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말씀은 커녕 미  
움과 시기와 오해와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더 많이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요? 내 안에 진정 말씀이 잉태되지 않  
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한다  
해도, 온갖 신앙성숙을 위한 노력을 한

다 해도 '나는 요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1코린 13,1)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내어 놓는 나의 존  
재가 되길 청하며, 말씀을 잉태하여 맞  
이 할 새해를 미리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  
다.”(1코린 13, 2.4.)



9월 28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1



9월 28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2



9월 28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3

##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

전영민 수산나

성탄, 하늘과 땅 우리 인간의 자유와 완성 우주의 축일, 예수님 탄생을 온 인류는 기쁨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날을 기린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살다가신 예수님의 삶은 전 인류에 끼친 획기적인 사례였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의 시점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추종자들의 열광은 더더욱 뜨거워 지는듯 하다.

예수님 보다 여섯달 전에 세상에 나오신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참된 예언자였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다듬은 선구자였다. 요즘처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현존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께서 예수님 행보의 길을 미리 닦아놓지 않았다면 빠른 시간에 그 많은 추종자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시대적인 측면에서 추측을 해본다.

그런 만큼 요한의 출생 또한 비범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이답에 어떤 인물이 될까라는 기대감이 컸을 거란 생각이든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달거리가 떨어진지 오래된 여

인으로 아기를 갖는다는것은 불가능 하였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로 요한은 탄생 하셨다. 겸손과 회개 하는자의 심볼이며 자신은 주님의 신발 끈을 풀어줄만한 인물도 못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했다. 그의 출생 또한 6월의 가장 긴날에 태어나서 점점 짧아져 가고 예수님은 12월 25일 탄생하여 점점 길어져가는 날을 볼때 '나는 작아져야 하고 주님은 더 커지셔야한다' 는 말의 의미가 놀랄 뿐이다.

아 그리고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 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 하는것을 가르쳐주십시오." 청하는 대목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의 기도문" 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의 기도문은 전승해 오지 않는것이다. 왜 그럴까? 필자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기도문을 앞세우기 위해 뒷전으로 물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것이라고 필자의 물음에 모스부룩 성당 신부님 말씀이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것 역시 단순히 부모님으로 부터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교리문답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이루며 하느님 구원사업에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삶 안에서 부딪치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때때로, 회의를 갖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자주 불화를 일으키지만 그 안에서 다시 믿음과 조화의 가능성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믿음에 의혹이 있다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감싸주고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단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사도들이 전해주었을때도 그는 고집스럽게 주님 상처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셔서 "자,여기 내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라." 하였을때 그는 즉시 엎드려 '주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예컨데, 토마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공동체에서 떠나 갔거나 동료사도들이 "야, 너 믿음이 없는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 한 것도 무시하는 놈, 너 우리 와 함께 있을 인물이 못된다."하고 공동체에서 밀려 냈더라면 토마스의 앞날은 참담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하신 주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 하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훌륭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것은 그런 토마스를 감싸주고 한 일원으로 용납 했기 때문에 가능 하지 않았을까. 우리들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자주 내 믿음에 물음표를 던질때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어느때 내 신앙에 의문을 품었던가, 나는 어느면에서 토마스 같았을까, 어디서 나의 충족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한번쯤은 모두 마음 안에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세례 받았던 때는 중학교 3학년 이었다 감수성이 가장 순수했다고 볼 수 있다. 성서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룩한 말씀들이 귀로 가슴으로 쏙쏙 들어오던 시기였다. 오죽하면 세례성사만 받으면 나의 구원은 보장 받은것처럼 행복해 했으랴. 믿음이 없는곳에 인생은 없고 신앙이 있는곳에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내가 스스로 터득한 삶의 행로이며 지침서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다. 🌈



9월 28일 외국인 공동체 미사 4



10월 5일 추석미사 한복팀



10월 5일 추석미사

## 크로노스가 아닌 케로스의 여행으로 남은 그리스 성지순례!

양소영 루실라

봄에 성지순례를 용기내어 신청하고도, 막상 출발 날짜가 다가오니, 가기 전에 성경을 다 못 읽은 걱정에 여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컸었다. 그럼에도 이번 여정은 단순한 크로노스, 즉 흘러가는 시간 속의 여정이 아니라, 케로스,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순간의 연속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출발했다. 특히나, 날씨요정 허광철 요셉 신부님, 든든한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 김우현 비오 신부님, 이지민 요안나 수녀님, 그리고 안길호 가이드님으로 이루어진 드림팀과 함께하니 영육이 충만한 성지순례가 되었다.

그리스 옛 도시국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찾는 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성 바오로 사도의 시대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은 실제로 경외감이 절로 들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다. 큰 기둥과 일대 아크로폴리스의 대리석 바닥, 세월에 수많은 발길에 다듬어져 반들반들 하얗게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에서 그리스 문명이 왜 그토록 오래 동경의 대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눈길을 더 끌었던 것은 파르테논 신전 아래쪽에 위치한 성 바오로 사도가 설교하셨던 언덕이었다. 나 또한 그 자갈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에 앉아 상상해 보았다. 이 평범한 언덕에서 사람들이 그 옛날 저마다 앉아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토론을 벌였으리라.

누구에게는 공감으로, 누구에게는 궤변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그 분의 말씀이 훗날 교회의 초석이 될 줄 사람들은 알았을까? 그러기까지 바오로 사도는 이와 같은 언덕,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전하셨을까..

그 생생한 감동은 코린토에서도 이어졌다. 그분이 말씀하신 아고라 광장의 무대와 반대편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벌받던 곳. 장면이 또 생생히 떠올랐다. 나중에 델피 박물관에서 갈리오 총독이 임명받았다는 현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가 이제 막 생겼을 그 생동적이면서도 불안한 위치와 공동체를 걱정하며



2025년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모임 성지순례 양소영 루실라 자매님 생일축하

보냈을 바오로의 코린토서 서간의 수신자들이 생활하던 그곳이 바로 눈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이런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드린 야외미사는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였다. 파란 하늘과 온화한 기온의 완벽한 날씨, 성 바오로 사도가 밟으셨을 그곳에서 오래된 주춧돌에 걸터앉아 바오 신부님이 강론하신 비겁과 겸손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되뇌었다.

미사 후 처음으로 공동체끼리의 정식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급속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성지를 한 곳 한 곳 가는 발걸음마다, 한끼 한끼 식사를 더할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성 안드레아 정교회 성당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파트라스에서 1박을 하고 가장 긴 다리를 건너 다음 목적지 델피로 향했다. 델피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 파르나소스가 있는 산악지대로서(그리스의 유일한 스키장이 있음) 고대 가장 신성한 장소였다고 한다.

고대 사람들은 아폴론 신전의 대사제가 내리는 신탁(오라클)을 얻기 위해 그 험한 곳을 걸어서 갔다고 한다. 그곳의 신전과 탑,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상과 조각들까지 그 신성함을 외경했던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정 중 가장 많은 단체관광과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를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집에서 물어보니 큰 아이가 라틴어 교과서에서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델피를 배웠다고 했다. 참고로, 오늘날 가톨릭은 델피를 종교사적으로 귀중한 유산으로 존중하며, “인류가 하느님을 찾으려 했던 진지한 노력의 표현”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오후에도 호시오스 루카스 수도원과 드라마 ‘태양의 후에’에 나왔던 아라호바 마을을 둘러보고 그곳의 산장 숙소로 들어왔다. 이날 밤은 우리 단체만 숙소를 빌려 마치 우리만의 별장처럼 안락하고 오붓하게 지냈던 특별한 밤이었다. 식사 후에 라운지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특별한 밤을 가졌다. 모든 분들이 성지순례에 참여한 기쁨과 설렘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 마음도 울컥해졌다. 항상 그렇지만 이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큰 은총으로 함께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밤이었다.

이제 우리는 사암절벽들이 인상적인 메테오라로 향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는’이란 뜻으로, 수도사들이 기암절벽에 은둔하며 수도를 하다가, 절벽을


올라가 수도원을 짓기 시작하여 현재는 6-7개의 수도원이 절벽마다 위치하고 있었다. 지형적 특징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도 접근이 어려워 보존된 '신앙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성 스테파노 수녀원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 정교회식 성당 안에 그야말로 정교한 나무조각과 성경의 주요 장면들을 성당 벽화에 빼곡이 그려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림만 보아도 예수님의 생애와 성 스테파노의 순교가 송고하게 다가왔다.

범죄율이 가장 낮다는 평화로운 마을 메테오라를 지나 드디어 마지막 여정지 테살로니카로 향했다. 테살로니카는 성 바오로 사도가 2차 복음여행 중 복음을 전하고 교회공동체를 세운 곳이며, '리디아'라는 여인에게 첫 세례를 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필리피의 성 리디아의 세례터에서 마지막 날 야외 미사를 드리며 세례갱신식을 거행하여 그날의 은총과 신비를 다시금 새겼다. 이후 평화의 인사를 서로와 포옹으로 나누며 모두들 울컥해졌고, 하나된 감동으로 물들었다. 이 날 우리 성지순례 팀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순례온 여러 단체가 곳곳에서 야외미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세례터 공원에서 그리스 가정들이 아이의 세례식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성 리디아와 성 바오로 사도가 바랐던 교회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몽클하였다. 가까이 위치한 필리피 유적터에서는 도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바오로 사도가 갇혀있던 감옥과 그분과 함께했을 교회 바닥 모자이크 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성 바오로 사도의 시대를 엿보고 온 느낌이었다.

4박5일 간의 여정이 너무나 아쉽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성바오로 사도가 초기 교회공동체를 위해 힘들게 노력하신 여정, 흔적들에 감사하며, 덕분에 지금 우리의 바이에른 공동체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매일 아침 버스 안에서 이동하며 함께 드렸던 묵주기도로 은혜로워진 출발길, 궂은 날씨가 예상되었지만 허광철 요셉 신부님의 기도로 선물받은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

비오 신부님, 요안나 수녀님, 세실리아 실장님 덕분에 언제나 따듯하고 든든했던 순간들, 안길호 가이드 님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주문같은 말에 아무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따듯하신 마음과 사랑에 나 또한 많이 치유받을 수 있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단순한 크로노스가 아닌 은총이 깃든 케로스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아멘. 



2025년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모임 성지순례 메테오라 식당 미사 1



2025년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모임 성지순례 메테오라 식당 미사 2

# 성아우구스티노 성서 모임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전정화 미카엘라

제가 성아우구스티노 성서 모임에서 구약 통독을 마치고 가슴 벅찬 감상문을 썼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지난 10월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녀온 그리스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신자분들과 나누고자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하여 코린토, 파스트라, 메테오라, 테살로니카를 거쳐 순례의 마지막 필리피 까지 4박 5일간의 알차게 짜여진 순례 코스를 그리스 역사와 종교 지식에 매우 박식하셨던 현지 가이드님의 인솔 아래 뮌헨 본당과 레겐스부르크, 뷔르츠부르크, 뉘른베르크 공소와 파리 와 비엔나 본당 에서 참여한 26명의 순례자들이 이번 여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사도행전과 코린터 전서, 테살로니카, 필리피 전서에서 살아 숨쉬는 바오사도의 선교 여정을 따라 2천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분이 실제 거닐었고 말씀하셨을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 있음에 있음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쏟으셨던 그분의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그 날 그리스의 따스한 바람에 실려 제 가슴 깊이 전달 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례 여정 내내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정다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했던 26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했기에 더욱 행복했던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저에게는 순례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지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둘째 날 코린터 유적지 에서 새하얀 뭉개 구름으로 장식된 하늘 아래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미풍을 맞으며 정성스런 야외미사를 올렸던 때입니다. 이 은총의 순간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모두 한마음으로 정성스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의 곳곳을 방문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사뭇 다른 신비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 깊은 그리스 정교회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성화들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천년 전 부터 지혜를 사랑했던 그리스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2025년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모임 성지순례 아테네 아레아 파고

그리스 문화의 진수가 녹아있는 유적지와 유물들 감상할 때면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 마냥 신이 나서 따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 9) 라는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성아우구스티노 성서 모임의 초기 모임이 결성될 당시 코로나 시국에 다함께 미사를 못 드리는 답답한 상황에서 몇몇 신자들간에 하느님을 더 잘 알고싶다는 작은 열망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가 이처럼 이번에 함께하기 까지 각자가 극복해야했던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여러 본당에서 모인 26명의 순례자들이 성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느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며 마음 다해 봉헌했던 미사와 나눔을 통해 서로간에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여서 참으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 받은 은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계획하고 계신 그 다음 여정이 무엇일지 너무나 설레이는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례를 앞장서서 지휘 감독하시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가장 애써 주신 허광철 요셉 신부님과 박경하 실장님께 깊은 감사말씀 전합니다. 🙏



2025년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모임 성지순례 아테네 주교좌 성당 단체사진



2025년 성 아우구스티노 성서모임 성지순례 코린토 미사



2025년 전례부 회식

##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뵤르쯔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

Mission.

Muenchen@eomuc.de

###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김동년 미카엘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상현 미카엘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

정지태 베르노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hotmail.com